

삼성물산, 태양광·풍력 6조원 수주

한국전력과 캐나다 발전단지 조성 ...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합의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캐나다에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한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으로 총 사업규모는 6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16년 동안 5단계로 진행되는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전반은 삼성물산이 주관하고 건설과 운영 및 송전은 한전이 맡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최종 사업규모는 세부 조율 중이어서 그때까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물산-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부터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온타리오 주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계약이 지연돼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1>